

**금주 반구**  
번뇌는 깊고 길어 밑바닥 볼 수 없고  
생사의 넓은 고해 가없는 허공인데  
고해를 건너가는 반야선 구하지 못했거늘  
가엾다 발을 뻗고 편안히 누움이어,  
-좌선삼매경-

# 현대불교

불교하는 불교 신사서원 02)745-8503  
이)1)286-2680  
서울 신계구 신북로  
신상선원 041)734-2680  
대천은신사 신안면 수경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4월 25일 수요일(주刊) 제 316 호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불교출판 화두 '살아남기'

"이런 어려움은 처음이에요. 무엇보다도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해 내보내야 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고비를 순탄하게 넘겨 살아남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불교서적 출판업은 이제 원로대접을 받는 한 출판사 사장의 한숨소리는 최근 불교 출판계의 현실을 함축하고 있다. 함으로 안타깝게도 요즘은 그의 걱정은 '좋은 책' 만들기가 아니다. 살아남기다. 올해 들어 불교출판사들은 사실상 휴업 상태라 할 정도로 신간 발행 중수를 줄였다. 한 달에 2권이 상을 낸 불교전문출판사가 거의 없을 정도다. 이 중에서 번역서나 기존 기획물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책은 전무한 상태다. 심지어 출판 방향을 저비용판이나 법공양자로 전환한 곳도 있다. 큰맘 먹고 책을 내봐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있는 상태다. 결국 불교출판사들의 최후의 처방은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인력 축소와 신간 발행 자제' 일 수밖에 없다. 최악의 선택을 최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역량 있는 필자의 기근과 그나마 몇 안되는 필자들의 불교출판사 기피현상 그리고 출판물의 과도한 광고 의존도 현상은 이러한 악순환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본과 인력의 열세 속에서 불교전문출판사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성 밖에 없다. 불교출판사만이 쥐어 낼 수 있는 독특한 소재를 고안해 대중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불교출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아울러 고급화와 출판 시장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면 분명 불교출판은 지금의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김종근(취재 2부 기자)

## “종교편향 법적 대응”

### 조계종 '공동변호인단' 구성 추진 종교자유 침해 국가상대 소송

교계종 종교편향사건의 근절을 위해 법적 소송의 방법으로 근본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는 공익소송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적 이슈화하여 종교편향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활동이 주목된다.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위원장 양산 총무원 사회부장)는 98년 창립 이후 3년 동안 종교편향 사건의 근절을 위해 대응해 왔음에도, 종교편향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 침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없는데 따른 것으로 보고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3면)

이를 위해 종교편향대책위는 25일

배금자 변호사와 면담을 갖고 소송 방법, 공동변호인단 구성, 중단 처원의 지원 방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배 변호사는 종교자유와 침해와 관련한 미국의 판례를 수집하여 연구한 전문 변호사이자.

종교편향과 관련한 소송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특정종교행위를 할 경우 곧바로 타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종교행평성을 들어 김선홍씨가 국가공유일지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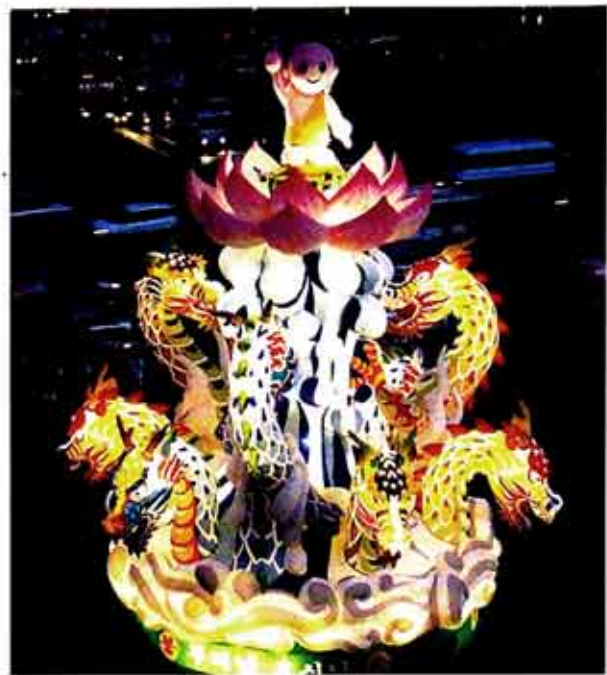
소송과 용태영 변호사가 1973년 부처님 오신날 공휴권 확인청구소송이 있을 뿐이다.

종교편향대책위는 종교편향전담 공동변호인단이 구성되면 그 동안 수집한 편향사례를 분류 분석하여 사례별 소송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 사건 발생과 함께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배금자 변호사는 "종교편향 사건은 명백히 헌법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며 "침대한 종교의 자유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소송이 활발하게 제기되어 개인의 종교자유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nia.com)



17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 고건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룡(九龍)과 아기부처님' 조형물 점등식행사가 봉행됐다. 조형물은 부처님 탄신 설화에 나오는 아홉 마리 용이 뿜어 아기부처를 관육시키는 모습'을 상징화한 것으로 5월 2일까지 불을 밝혀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을 온누리에 전하게 된다. 사진=고영배 기자

### 진각종 새 총리원장 효암 대정사

#### 교육원장 혜정 대정사

불교 진각종 제26대 총리원장에 효암(孝庵) 대정사가 선출됐다. 진각종 종의회는 19일 서울 총인관내 종의회 회의실에서 종의회 의원 37명 중 36명이 출석한 가운데 제325회 정기종의회를 열고 26대 총리원장으로 효암 대정사대교구구청장을 선출했다. 종의회는 또 9대 교육원장에 현 총무원장 정대스님(正臺) 대정사를 선출했다.

신임 총리원장으로 선출된 효암 대정사는 당선 소감을 통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종단이 더

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대형 조형물은 부처님의 탄신 설화에 나오는 '아홉마리의 용과 용이 뿜어 아기부처님을 관육시키는 모습'을 상징화한 대형 조형물로 높이가 15m에 이른다.

점등식에는 정대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혜초스님, 천태종 교무부장 춘공스님, 불교위 집행위원장 권택스님,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 고건 서



△효암 대정사



△혜정 대정사

이경숙 기자 (gslee@buddhania.com)

### 서울 시청앞 봉축 조형물 '점등'

#### 부산역 광장에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17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구룡(九龍)과 아기부처님' 조형물 점등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대형 조형물은 부처님의 탄신 설화에 나오는 '아홉마리의 용과 용이 뿜어 아기부처님을 관육시키는 모습'을 상징화한 대형 조형물로 높이가 15m에 이른다.

점등식에는 정대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혜초스님, 천태종 교무부장 춘공스님, 불교위 집행위원장 권택스님,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 고건 서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조형물인 829층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에 이어 참가자들은 '나누는 자비, 하나되는 부산'이라는 표어를 촛불로 밝혀 봉축의 의미를 되새겼다. 정성은 '천마회 기자' (swjung@buddhania.com)

## 1구좌 1천원 법보시운동

군부대·경찰서·교도소 등 현대불교신문을 보냅니다

현대불교는 소위만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 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군부대, 교도소, 영호권, 교외권, 병원 및 사회 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신문 보내기 운동 등 전개하여 불교를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일 1천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하루 2천 여부의 신문이 군부대, 교도소, 수형자 등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천111 여부의 신문을 배포할 수 있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의 공덕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이 쌓인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르시기를 "사구계 하나라도 남에게 알려주는 공덕은 삼천大千 세계를 가득 채운 만물의 합보다도 보시할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 법보시 후원 후원방법: 매일 1,000원 이상 자선기부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의 상해치연내 또한 법보시하는 불자들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 단체를 정해서도 됩니다.
- 참여방법: 은행에 가서서 아래의 계좌로 통장계좌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자동이체 및 온라인 입금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법보시 후원 자선기부 계좌번호(계좌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333	농	057-01-23053
한미은행	082-000001-13-701	신	057-01-007450
외환은행	150-11-12902-6	백	011-12450
서울은행	15501-2269115	대	100-20-560799
조흥은행	390-01-056471	7	024-022451-04-012
하나은행	111-216474-00104	한	100-51057-249
주척은행	504537-01-000064	평	052-25-0001-512
- 법보시 후원금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사 교무부 02)737-8881 대표 / 02)737-0090 직통 / 팩스 02)737-0697

### 장군 죽비

△108명의 조계종 스님 'NMD' 반대 선언 '방어'라는 말에는 이미 공격이 내장되어 있음을 미국은 왜 모릅니까? (5면)

△네덜란드, 세계 최초로 '인류사' 인정. 인간이 인간의 '살과 죽음'에 간섭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 대한 본격적인 의문 제기. (8면)

△국가 지정 문화재 중 불교문화재 61%, 문화재위원 중 불교문화재 전문가는 7%, 공든 탑이 무너질 수밖에. (16면)

△강원도 고성군 전통사찰 주변 개발 제한키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성군을 벤치마킹 하라. (23면)

### '하나된 민족' 기원 대법회

종단합·봉축위 주최  
26일 1천여명 동참

부처님 오신날 봉축 민족화해 협력과 조국통일 기원대법회'가 26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다. '하나된 민족, 하나된 조국'을 주제로 내건 이번 법회는 종단협의회와 봉축위원회가 공동 주최해 열리며, 종단협의회 소속 26개 종단 총무원장과 신도 대표, 정·관계 인사 등 100여명

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회는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의 봉행사, 김대중 대통령의 처사,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의 기원문 낭독, 진각종 상초 총리원장의 불자의 다짐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스님(한울종 총무원장)은 "이런 시기에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불자들의 의지를 모으는데 법회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성은 기자

**알림**  
다음주 신문(317호)은 '부처님 오신날 특집호' 제작 관계로 배달이 하루나 이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一心佛院**  
각종 불사/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佛壇, 燈籠, 壇場, 鉢鉢  
02-725-2030 / 725-2040

## 새천년의 발원

- 손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한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쁨을 자랑합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팔모주름등



(빨강)



(핑크)



(노랑)



(연두)



보관형대 (팔모주름등)

###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빨강)



(노랑)



(오색)



(차갈이등)

### 팔모조립등



(빨강)



(노랑)



(주련등 빨강)



(주련등 노랑)



(육각등)



(핑크)



(노랑)



(오색)



(만월장등)

전국발 계정번호(계좌) 122)6802 / 불교용 인쇄물(계좌) 098634호의 의뢰/발행 이수 보류권계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